



'올림픽채널 SBS, 방송중계 종목에서 금메달 획득'



올림픽채널 SBS가 네티즌들로부터 방송중계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뤘다.

포털사이트 '다음' POLL에서 지난 8월 4일(토)부터 나흘간 '런던올림픽 중계, 가장 만족스러운 방송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3사 중 SBS가 네티즌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SBS는 1만 3천 명이 넘는 네티즌 가운데 무려 53.7%의 선택을 받았고, 이어 KBS가 22.6%를 기록했으며, MBC는 6.6%에 그쳤다.

한편, 올림픽채널 SBS는 다른 방송사와는 차별화된 기획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메달이 유력시 되는 선수를 다룬 미니 다큐멘터리 등을 중계 사이사이에 배치, 경기 보는 재미를 더했다. 여기에 축구의 차범근, 수영의 노민상 등 해설위원들의 활약도 각광을 받았다.

이에 SBS 런던올림픽 방송단 관계자는 "SBS는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좋은 해설자와 캐스터가 함께 스토리와 감동을 아우르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역점을 두었고, 더불어 미니다큐 등도 정성껏 준비했다"며 "이에 많은 네티즌들이 올림픽채널 SBS를 선택해주신 것 같다. 올림픽이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중계하겠다"고 말했다.

차범근-배성재 콤비 130분 선 채로 중계투혼

타사압도하는 중계방송 시청률

박태환 스승, 노민상 위원의 중계는 달랐다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브라질에 아쉽게도 3대 0으로 완패하면서 결승 진출은 좌절돼, 일본과 8월 11일(토) 동메달을 놓고 맞붙게 됐다. 이에 앞선 지난 8월 5일(일) 새벽 3시 30분(한국 시각) 펼쳐진 영국과의 8강전은 승부차기 끝에 한국이 승리로 장식하며 4강 신화를 이뤄냈다.

이와 함께 SBS는 MBC와 함께 중계한 축구 8강전 중계에서 승자가 됐다. 차범근 위원과 배성재 캐스터의 맛깔나는 진행으로 전체 시청률 12.8%(AGB닐슨미디어 리서치 전국기준), 순간 시청률 27%를 기록했다. MBC는 전체 시청률 7.8%에 머물렀다.

차 위원과 배 캐스터는 전후반과 연장전 그리고 승부차기까지 130분 동안 서서 중계하는 투혼을 발휘했다. 이 경기장장의 중계석이 다른 경기장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인데, 긴장감 넘치는 현장 분위기를 전달하는 데 일조했다. 이 때문에 둘은 경기 내내 올림픽 주관방송사 OBS뿐 아니라 다른 나라 캐스터 등 주위의 이목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반면 MBC는 중계 스튜디오에서 오프튜브(OFF-TUBE)로 중계했다.



박태환의 스승 노민상 해설위원과 배기완 캐스터 콤비의 생생한 중계를 앞세운 SBS가 박태환 선수의 결승전 중계에서 함께 중계한 MBC를 앞서는 시청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과 31일 새벽에 진행된 박태환 선수의 400m와 200m 결승전 경기에서 SBS는 각각 7.6%와 6.7%(AGB닐슨, 전국기준)를 기록해 5.3%와 3.6%를 보인 MBC를 크게 따돌린 것. 이는 박태환 선수를 누구보다 잘 아는 노민상 위원의 기술적 해설과 배기완 캐스터의 편하면서도 생생한 중계가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은 것이다.

또한, 올림픽에 출전한 모든 선수들의 땀과 열정을 응원하기 위해 "~에 그쳤습니다", "~에 머물렀습니다"라는 부정적 표현을 지양하는 해설을 하겠다는 배기완 캐스터의 철학적 중계가 타 방송사와 차별화에 성공한 것이라는 평이다.

SBS의 수영 중계를 접한 시청자들은 "침착하지만 분석력 있어 더 몰입이 잘된다. 특히 노민상 해설위원이 잘 짚어주는 듯하다", "역시 SBS는 배기완 아나운서가 중계 갑이다. 노련미가 묻어나는 중계, 매력적인 중계"라는 찬사를 보냈다.



'차-배 콤비' 중계시 한국축구 불패! 신가~네~

차범근 축구 해설위원과 배성재 캐스터 콤비의 중계가 한국 축구의 불패 신화를 이어가고 있어 화제다.

지난 7월 30일(월) 축구 예선 2차전에서 한국은 스위스를 2대 1로 이겼고, 8월 5일(일) 8강전에서는 홈팀인 영국과 겨뤘 승부차기까지 가는 명승부 끝에 올림픽 4강 신화를 이뤘다.

알고 보니 모두 SBS가 중계했던 축구 경기로 한국이 불패하는 기염을 토하면서 큰 화제가 됐다.

차범근 위원과 배성재 캐스터는 지난 2010년 남아공월드컵부터 호흡을 맞추기 시작해 2011년 아시안컵 본선경기 바레인전과 이란전을 차례로 중계했는데, 각각 2대 1과 1대 0으로 한국이 이겼다.

또 같은 해 11월 2014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아랍에미리트전에서 2대 0으로 이겼고, 런던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인 사우디아라비아 경기에서는 1대 0으로 승리했다.

차범근-배성재 콤비의 한국팀 승리 기운은 2012년에도 이어졌다. 런던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 오만전에서 3대 0으로, 2014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쿠웨이트 전에선 2대 0으로 이겼다. 이처럼 차-배 콤비는 2011년부터 이번 2012 런던올림픽까지 총 9번 중 7번을 현장 생중계했는데 모두 승리를 거뒀고, 오프튜브(OFF-TUBE)중계는 1승 1무를 거두는 등 8승 1무의 전적을 갖게 됐다.

한 여름밤 on-off 라인 응원전 모두가 SBS와 함께했다



SBS 대국민 응원축제 성황리에 마쳐



SBS 런던올림픽 대국민 응원 페스티벌 'ALL라! 코리아'가 두 차례 열린 호응 속에 진행됐다.

지난 7월 30일(월)과 8월 5일(일) 각각 '대한민국 VS 스위스', '대한민국 VS 영국' 축구 경기의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 'ALL라! 코리아'가 펼쳐진 것. 용산 아이파크몰

광장에서 진행된 'ALL라! 코리아'에 모인 2천여 명의 시민들은 새벽까지 목소리를 높이며 축구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했고, 올림픽 대표팀은 응원전을 펼친 두 번의 경기 모두를 승리로 보답해 짜릿함을 선사했다.

이 같은 대대적인 축구 거리응원은 순차중계를 맡은 지상파 3사 중 SBS가 유일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지난 스위스전에 이어서 같은 장소에서 거리응원을 진행했다. 'ALL라! 코리아'는 '함께하는 올림픽'을 모토로 SBS가 시청자 서비스 차원에서 마련했으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응원 도구와 간식 등 '놀거리'와 '먹거리' 등이 공짜로 제공됐다. 또, 축구 중계 전에는 마이티마우스, 배치기, 2PM 우영, 트랜스픽션, 크리스피 크런치, 아지아티스, 타히티, 안다미로 등의 가수들이 한 여름밤 신명나는 무대를 꾸며 분위기를 끌어 올렸다. SBS 홍보팀 관계자는 "승부도 중요하지만, 올림픽을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즐기면서 응원하는 'ALL라! 코리아'를 기획하게 됐다"면서 "2차 때는 1차 때보다 약 50%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새벽 첫 기차를 타고 용산역에 내린 한 시민은 "피곤한 몸으로 집에 가기 위해 용산역에 내렸으나, 시민들이 모여 열린 응원을 하는 모습을 보고 합류했다"고 말했다. 타 지상파 뉴스팀과 중편 등 시민들의 반응을 스케치하는 각종 언론매체들의 취재 경쟁도 밤새 이어졌다.

'홍분의 도가니' 된 스마트폰 "함성 대신 '쏘티'~"

시청자들의 응원 열기는 온라인에서도 이어졌다.

홍명보호의 런던 올림픽 축구 8강전에서의 극적인 승리는 타임 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SBS가 이번 런던올림픽을 겨냥해 출시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쏘티'를 통해서 준비한 올림픽 남자 축구 8강전 '투혼 응원'전에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댓글이 실시간으로 쏟아진 것이다.

영국의 홈 텃세에도 내내 압도적인 경기를 펼친 대표팀 선수들을 응원하는 댓글이 경기 당일 오전까지만 무려 3만 1천 건이 이어졌다. 이는 기존 인기 종목에 대비해서도 3배에 이르는 수치로 경기가 새벽 시간대에 중계된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반응은 가히 폭발적인 것이라고 한다. 올림픽을 통해 TV시청자들의 열기를 스마트폰으로 끌어들이려는 SBS의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유사한 서비스로는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의 웹 기반 'TV톡' 서비스가 있지만 스마트폰 전용 '쏘티'에 쏟아지는 응원 댓글에 비하면 네이버의 막강한 방문자 수에도 불구하고 한산한 모양새를 띠었다.



SNS

또 하나의 SBS 감동 선물... '런던버스' 프리포즈 이벤트

1등, 3등 2시탈출 킥투쇼 출연



1등을 차지한 '홍현미, 최윤호' 커플은 "런던 버스 프리포즈" 이벤트 3일 뒤, 7년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며 "런던버스 프리포즈"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기뻐했다. 이어 아내 홍현미 씨는 "남편의 배려가 너무 고맙다"며 "평생 잊지 못할 프리포즈도 받고 런던 여행까지 가게 되다니 2012년은 진정한 최고의 해"라고 강조했다.

3등을 차지한 '이승후, 신채빈' 커플은 "<썩> 프로그램에 출연해 배우자를 찾고자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런데 프로그램 밖 모임을 통해 다른 출연자를 만나게 됐고 이렇게 연인을 찾았다"면서 "<썩>이

맺어준 인연인 만큼 SBS 프로그램에서 프리포즈 하고 싶었는데 마침 '런던버스 프리포즈' 행사가 있어 너무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또 "상품으로 100만원 상당의 커플링도 받게 됐으니 '런던버스'가 소중한 기억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2등을 차지한 '백승복, 이미숙' 커플에게는 태국 여행권이 제공된다.

'런던버스 프리포즈'는 50커플의 신청을 받은 가운데 8커플이 선발돼 프리포즈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총 1만 574명의 네티즌이 투표에 참여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 투표 50%와 심사위원 투표 50%를 반영, 1, 2, 3등 당첨자가 결정됐다.



영국에서 뜨는 ★ SBS 아나운서

박선영 아나운서, 英 가디언誌 대서특필

박선영 앵커가 영국 가디언지를 대대적으로 장식하며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박선영 앵커는 지난 7월 25일 오전(영국 시각) '런던 2012 특집 8시 뉴스' 진행을 위해 런던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타워브리지 앞에 섰다. 이 모습이 26일 발간된 영국의 유력 일간지인 가디언지(The Guardian)에 무려 두면에 걸쳐 실리면서 화제가 된 것.

런던올림픽 특집으로 마련된 이 신문 속에서 분홍빛 드레스를 입은 박 앵커는 오후기로 장식된 타워브리지를 뒤로 하고서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고, 이를 촬영하는 <SBS 8뉴스>라고 새겨진 카메라의 모습도 선명하게 보여지면서 영국에서도 '올림픽채널 SBS'를 과시한 것이다.

자신의 모습이 담긴 신문을 본 박선영 앵커는 "내 모습이 영국 신문에 이렇게 크게 실린 걸 보고는 깜짝 놀랐다"며 "나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 영국인



들의 한국과 한국인을 향한 관심이라 생각하니 더욱 기분이 좋다. 부디 우리 한국 선수들도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서 좋은 성적을 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겸손해했다.

특히, 박 앵커는 지난 7월 초 진행된 한국 대표 선수단의 결단식에서 진행을 맡으면서 우리 올림픽 선수단과 깊은 인연을 맺기도 했다. "당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자신감 넘치는 눈매가 아직도 눈에 선하다"며 "나이 어린 선수들도 많이 있는데, 이들이 큰 대회에서 떨지 않도록

우리 국민분들이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면 분명히 큰 힘을 얻을 것"이라고 들려주기도 했다.

이어 올림픽 방송을 위해 런던에 처음 오게 된 그녀는 "런던 현지에 도착하니 어떻게 하면 올림픽 뉴스와 개막식 소식을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더 많아진 것도 사실"이라며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아나운서팀에서 제작한 올림픽 길라잡이라는 책과 동영상 자료, 그리고 현지 선수들에 대한 소식도 꼼꼼하게 접하면서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박선영 앵커는 "현재 우리 SBS올림픽 방송단은 런던올림픽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저의 경우, 이번 올림픽을 위해 정말 많은 땀을 흘린 우리 선수들의 메달 소식을 자주 전해드릴 수만 있다면 더없이 기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선영 앵커는 7월 25일 방송된 <런던 2012 특집 8시 뉴스>에서는 런던브리지 앞에서, 그리고 26일에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배경으로 특별제작된 런던 2층 버스 스튜디오에서 뉴스를 진행해 영국시민들의 많은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배성재 아나운서 '춘철살인' 어록 떴다!



런던올림픽 남자 축구 중계를 맡은 배성재 아나운서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배성재-차범근 콤비의 축구 중계 방송이 타 방송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전문적이고 흥미롭다는 축구 팬들의 평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성재 아나운서의 재치있는 멘트까지 화제가 됐다.

지난 스위스전을 중계한 배 아나운서는 특유의 입담으로 시청자들을 즐겁게 했다. 기성용이 거친 파울을 한 스위스 선수를 상대로 강하게 압박하자 배 아나운서는

"기성용 선수한테 걸리면... 없다"며 "진정한 파이터는 눈빛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 아나운서는 자신 역시 기성용에게 압도당한 듯 낮은 목소리로 중계를 이어가 웃음을 유발했다. 또 스위스 선수가 할리우드 액션으로 넘어지자 "뛰히는 건가요? 경기장에 벌이 있나요. 선수가 벌에 쏘였나 보네요"라고 상대를 비꼬았다. 유난히 많은 옐로카드를 받는 스위스팀에 대해서 "오늘 카드 수집을 많이 하고 있다"며 센스있게 받아쳤다.

배 아나운서의 활약은 경기가 끝난 후에도 이어졌다. SBS 공식 트위터를 통한 이벤트 참여에 대해 설명하던 그는 갑자기 "제 트위터에도 많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배 아나운서의 트위터는 경기가 끝난 후 접속자가 몰려 잠시 다운되기도 했다. 팔로워 수는 크게 늘어 1만 5,862명을 보유하게 됐다.

이 내용들은 '배성재 어록'이라는 제목과 함께 인터넷 상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 트위터러안은 "배 아나운서 때문에 많이 웃었다. 마냥 전문적인 중계보단

가끔은 이런 재치있는 중계가 더 와닿고 재밌다"고 말했다. 또 다른 트위터러안은 "생중계 중 자신의 트위터를 홍보하는 패기! 크게 될 사람이다"며 웃었다. 네티즌들은 이번 경기의 숨은 MVP로 배 아나운서를 꼽기도 했다.

네티즌들의 관심도 폭증하여 멕시코 전 축구를 중계한 타 방송사의 경기 중 SNS글이 당시 4천 건이었던 데 반해, 무려 5배나 많은 2만 건의 SNS글이 SBS트위터로 쇄도했다.

8강 영국전에서도 배 아나운서의 어록은 계속됐다.

"축구 중가 영국 무너뜨리고 축구 명가 브라질 무너뜨리러 갑니다", "영국은 우리의 4강 진출 기념품" 등의 센스있는 멘트에 대해 트위터러안들은 "이 분 방송 참 잘해요" "멘트가 주옥같다"는 등 호평을 늘어냈다.



무도 김태호 PD의 위험한(?) 발언 "SBS 배성재 해설 들을래"

<무한도전> 김태호 PD가 자신의 소속 방송사 MBC가 아닌 SBS 축구 중계에 애정을 보였다.

트위터를 통해 김태호 PD가 배성재 아나운서의 축구 중계 팬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 지난 8월 6일(월) 배성재 아나운서는 자신의 트위터에 "동전 던지기를 통해 정한 결과 한국과 브라질의 준결승전은 KBS와 MBC를 통해서만 생방송 됩니다. 많이 아쉽네요"라고 글을 남겼다.

이에 김태호 PD는 "치맥 멘트 듣고 빵 터져서 수요일 새벽에 치맥 준비하고 볼까 했는데요"라며 배성재 아나운서의 축구 준결승 중계를 들을 수 없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김태호 PD의 말에 배성재 아나운서가 "M 선배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라디오로 들으시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결승전 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자 김태호 PD는 "아~ M 화면에 S라디오 틀어놓고 볼까요?"라고 재치있게 화답했다. 김태호 PD의 센스 있는 발언에 배성재 아나운서는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발언을..."라며 김태호 PD를 달랬고 이에 김태호 PD는 "덕분에 열대야 버팁니다. 무사히 일 마치고 몸

2012 런던올림픽에 가 떴다!

지난 8월 4일(토) 방송된 올림픽 특집 <런던캠프 기쁘지 아니한가>가 런던올림픽을 빛낸 영광의 얼굴들과 짜릿한 감동의 순간을 함께했다.

지난 7월 25일(수), 부푼 마음으로 런던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3MC 이경규, 김제동, 한혜진은 런던올림픽의 화려한 개막식 현장을 비롯해, 금메달 순간 등 희로 애락의 드라마가 있는 올림픽 현장을 직접 찾아 감동과 환희의 순간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수영 400m 예선 실격 판정과 판정 번복을 겪은 박태환의

부모를 만나 솔직한 심정을 들어보고, 대한민국에 첫 금메달의 안겼던 진종오, 은퇴를 앞둔 무명 복서 한순철, 유도 메달리스트 3인방 송대남, 김재범, 조준호 선수를 만나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선수들의 뒷 얘기를 담아냈다.

한편, <런던캠프>의 축구 응원 장면을 담은 스페셜 방송 '런던캠프, 축구응원기'는 일본과 맞붙는 8월 11일(토)에 방송될 예정이다.



올림픽에서 SBS 흔적 찾는 깨알 같은 재미



오심 패러디... "초능력은 올림픽에 있다?"



'런던올림픽 초능력자들'이라는 게시물이 화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런던올림픽 초능력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은 <런닝맨-초능력자 특집>을 패러디한 것으로, 박태환 선수와 조준호 선수, 신아람 선수등의 오심 심판들을 패러디하고 있다.

첫 번째는 남자 수영 400m 예선에서 박태환의 스타트 자세를 지적하며 예선 실격판정을 내린 캐나다 심판이다. 그는 초고속 카메라로도 볼 수 없는 흔들림을 육안으로 감지한다고 우기는 '1만분의 1초를 보는 자'다.

두 번째는 유도 남자 60kg급 8강전에서 조준호 선수의 3-0 판정승을 한 번에 뒤집은 국제유도연맹 심판장이다. 그는 유도 정신을 내세워 심판들을 허수아비로 만든 후 판정을 뒤바꿀 수 있는 '법을 거스르는 자'다.

마지막 초능력자는 펜싱 여자 에페 신아람 선수를 올린 독일 심판이다. 그는 불리한 상황에 칼을 세 번 휘둘러도 1초가 지나지 않도록 시간을 멈출 수 있는 '1초를 지배하는 자'다.

한편, '런던올림픽 초능력자들'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감 100%", "진짜 올림픽이 아니라 예능이다", "나도 저런능력있음 금메달 딸 수 있겠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8월 5일(일) 방송된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에서도 오심 패러디 영상을 내보내 시청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음악으로 봉사활동해요~ 8월 13일~15일 '드림오케스트라 캠프' 개최



SBS그룹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2012년 청소년 캠프'가 8/13(월)~15일(수) 2박3일 동안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대교연수원에서 진행된다. 이 행사는 서울과 천안 두 개 지역아동센터 '드림오케스트라' 단원(초등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며 악기를 배우고 팀워크를 이끄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재단 공동진행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참여 가능 연령은 중, 고등학생으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 중 한 악기 이상 연주가 가능해야 하며 캠프가 진행되는 동안 음대생 멘토와 함께 초등학생 연주 연습을 지도하는 보조 멘토로 활동하게 된다. 캠프가 끝나면 자원봉사 확인서도 발급해 준다. SBS 임직원 자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린다. 참여신청 문의는 희망내일위원회 사무국 강경모 차장에게 하면 된다.(#5452)

'2012년 상반기 외주제작 인센티브'

지난 7월 27일(금) 경기도 양평에서 '2012년 상반기 SBS 외주제작 인센티브 시상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장광호 편성실장과 외주 제작팀 PD, 외주제작사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높이고, SBS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제작사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 우수상에는 올해 상반기 시청점유율(5.5/14.1%)이 지난해 동기 시청점유율(5.2/12.6%)보다 1.5%p 오른 <접속 무비월드>가 받았다. 또 특별부문 개인상에는 SBS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지식나눔 콘서트 아이러브 S'의 강만훈 작가에게 돌아갔다.

한류 상품 공식 유통을 위해

'최초'로, 저작권자-일본 유통사업자 뭉쳤다

SBS 콘텐츠허브는 일본 최대 규모의 한류 매장 'YEP! SEOUL'을 기획하고 관련 상품을 유통 중인 '퍼스트핸즈'와 공동 투자사인 '이메진하쿠요'와 손을 잡고, '드라마 <시크릿가든> 유통전'을 지난 8월 3일(금)부터 약 두 달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시크릿가든 유통전'은 단순히 일본 내에서 드라마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뿐 아니라, 일본 한류시장에 만연되어 있는 불법 제품의 근절과 정식 제품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업계 최초로 저작권자와 일본 유통 사업자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벤트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 일본사무소'의 협조 하에 캐릭터 라이선싱 전문 기업 'K VISION Inc.', 일본 내 한국 서적 전문 출판사 'CUON', 완구 제조 및 수출 전문 기업 '드림토이' 등 상품 유통 관계사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장을 마련했다.

본 이벤트를 위하여, 일본 최대 출판 유통 사업자인 'NIPPAN'의 자회사 '이메진하쿠요'는 약 1,000명에서 3,000명 규모의 대형 서점 20여 곳의 이벤트 공간을 무료로 대여해줄 예정이다.

귀로 즐기는 축구, '쏘티'와 함께

러브FM에서 올림픽 축구 한국 대표팀 전 경기를 생중계하고 있다. 지난 7월 26일 멕시코전을 시작으로 스위스와 가봉전 등 최종 예선 전 경기를 생중계했으며, 영국과의 8강전과 브라질과의 준결승전 또한 생생하게 전파를 댔다. 이번 올림픽 축구 대표팀 특별 중계는 개그맨 김학도, 차승환(신문지) 콤비와 개그맨 김범룡이 진행했으며, 해설은 '전설의 차